

農·工間 關係分析을 통한 中國經濟發展의 性格考察⁽¹⁾

李 日 榮

中國은 의외상 비교적 均衡的인 발전을 추구하였다는 논의가 있는가 하면, 中國經濟發展의 논리가 전통적인 社會主義 工業化論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中國 經濟發展戰略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하여 1953~1990년, 1953~1965년, 1966~1978년, 1979~1990년에 있어서의 농·공업 성장물의 因果關係, 농·공업 성장물의 變動, 농산물 수매 및 소비의 變動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66~1978년 기간을 제외한다면 1953~1990년, 1953~1965년, 1979~1990년에 모두 ‘工業優先’ 전략이 관철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78년 3中全會에서 “농업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실제에 있어 農·工間 不均衡이라는 구조적 왜곡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中國에는 1978년 이후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적 발전패턴이 ‘連續’하고 있는 것이다.

1. 問題의 提起

1978년 이래 中國經濟에는 급속한 개혁이 단행되었다. 농촌에서는 人民公社가 해체되고 국가에 의한 計劃收買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러한 분권화·시장화 개혁의 결과 1978~1984년에 농업생산은 사상 유례 없는 호조를 나타냈다. 또 人民公社 산하의 社隊企業은 다양한 형태의 농촌기업, 즉 鄉鎮企業으로 재편되었으며, 도시에서도 個體企業, 私營企業과 같은 사적소유 기업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렇게 1978년 이후 中國經濟에는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지 않던 소규모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확실히 과거 생산재 일변도의 체

(1) 본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李日榮(1994)]의 제Ⅳ장 제2절 중 일부를 보완한 것이다. 학위 논문을 지도·심사해주신 서울대학교의 鄭英一, 姜命圭, 李根, 張慶燮 교수님과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高在模 박사님께 감사드린다. 또 본논문을 투고하기 전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現代中國研究會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점은, 중국의 공식 시계열통계의 신뢰성—특히 개혁 이전의—을 감안할 때, 본논문의 결론이 다소 ‘冒險的’(risky)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중국의 공식 시계열통계를 이용한 試論的分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본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중국 경제발전 전에 대한 기본시각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 없이 미시적인 연구에 들어갈 경우, 거대하고도 다양한 성격을 지닌 중국경제를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으로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둘째, 중국의 공식통계라고 해서 모든 사실을 체계적으로 ‘隱蔽’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조건하에서 전국 레벨에서 이보다 우수한 자료를 얻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제로부터 소비재 생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때 經濟發展戰略의 성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제도는 과거의 정책·제도와 정확하게 어떤 점에서 대립되는가? 農·工間 不均衡이라는 구조적 왜곡은 해소되고 있는가? 1978년 이후의 분권화·시장화 개혁을 통하여 蘇聯型의 발전패턴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가? 과연 中國은 경제개혁을 통하여 종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한 蘇聯에서는 대내적으로 노동계급을 육성하고 대외적으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공업화에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급속한 공업화는 농촌·농민의 상대적 빈곤에 기초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으로부터 資源을 移轉하여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은 蘇聯 이외에도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되었다.⁽²⁾ 따라서 中國經濟發展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면 中國의 발전전략이 蘇聯型 발전전략의 문제점을 얼마나 극복하였는가라는 문제가 반드시 제기되게 된다.

Eckstein(1977, pp. 61~65)은 蘇聯의 스탈린적 전략의 목적을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 공업(특히 중공업) 발전에의 주력, 이를 위한 高率의 저축·투자율, 농업의 희생에 기초한 공업화, 농업 및 기타부문에서의 제도적 변혁, 자본집약적 공업기술에 대한 편향적 선택으로 규정할 바 있다. 요컨대 스탈린적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희생, 공업우선이라는 農·工間 二分性(dichotomy)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中國과 蘇聯의 사회주의화에는 그 초기조건, 진행과정, 성격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Saith(1985)는 러시아의 경우 대규모 도시공업 地帶가 존재하였으며, 농민을 의심하는 전통적인 맑스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농민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농업생산물 잉여를 자본으로 轉化시키고 농업노동력을 도시공장으로 移轉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즉 농민을 배제한 상태에서 集團化등의 수단을 통해 농촌부문을 상품화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中國에서는 농민이 혁명의 動力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농촌발전을 그 자체의 목적으로 하여 농업부문의 개혁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2) 스탈린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하여 농민이 '貢組'(또는 '超課稅')와 도시와 농촌간의 '缺狀價格差'라는 이중의 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스탈린의 주장은 네프기에 벌어진 공업화논쟁 과정에서 제시된 브레오브라첸스키의 '社會主義 原始的 蓄積'론에 바탕을 둔 것이다. 브레오브라첸스키에 따르면, 첫째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原始的 蓄積'의 주된 담당자는 농촌 또는 농민이며(剩餘의 源泉에 관한 명제), 둘째로 잉여를 흡수하는 방법으로는 課稅, 國債, 銀行制度와 함께 價格政策이 있다는('原始的 蓄積' 방법에 관한 명제) 것이다[プレ오브라첸스키(1967) 참조].

崔義中·王甬永(1991) 역시 蘇聯과 대비되는 中國農業의 사회주의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즉 中國은 공업의 기초가 빈약한 초기조건에 직면하였으므로 蘇聯과 같이 공업화에 따라 農業集團化를 행한 것이 아니라 농업 자체의 생산 증대를 위해 농업을 集團化하였으며, 集團化의 動力은 貧農과 中農下層이었다는 것이다. 또 中國은 장기적인 토지 혁명과 농민조직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農業集團化를 蘇聯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富農 처리에 있어서도 체포·유배·축출보다는 재산몰수 후 개조·흡수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中國의 經濟發展戰略이 기본적으로 스탈린적 전략과 성격을 같이 한다는 논의도 다수 존재한다. 비교경제체제론적 시각에 의하면 中國經濟는 蘇聯의 集權的 計劃經濟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전통적인 집권 계획경제는 급속한 成長·工業化, 집권화, 社會的 所有를 목표로 하고, 명령경제(command economy), 압박경제(pressure economy), 중점경제(priority economy), 외연적 발전(extensive development), 폐쇄경제(closed economy)를 핵심요소로 하는 체제를 의미하는데, 개혁 이전의 中國도 이러한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Brown and Neuberger(1989, p.264, pp.285~287)].

신고전파적 발전이론의 맥락에서 볼 때 中國은 ‘重工業優先’ 발전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스탈린적 전략을 답습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Lardy(1983)는 이러한 中國經濟發展의 성격을 부문간 상품 이전, 가격효과, 투자의 부문별 배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후, 中國의 발전전략이 농업을 저평가하고 도시·공업에 편향된 불균형적이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³⁾

나아가 이러한 不均衡的 戰略이 개혁 이후에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논의도 등장하였다. Lardy(1983, 1984)와 Perkins and Yusuf(1984)에 의하면, 中國의 不均衡的 成長戰略은 투자자원의 배분, 그의 상대가격 구조, 평균 식품소비의 정체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Kueh(1989)도 새로운 지도체제가 농·공간 불균형, 공업의 지역간 불균형, 공업기술의 二重構造 등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구조적 왜곡을 결정적으로 시정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

이처럼 中國은 의견상 비교적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였다는 논의가 있는가 하면, 中國 經濟發展의 논리가 전통적인 社會主義 工業化論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3) 동일한 맥락의 연구로 Selden and Lippit(1982), Gary and White(1982), Parish(1985) 등 다수가 있다.

(4) 단 Kueh(1988)는 소득·소비의 측면을 관찰한 결과 부문간 격차가 극적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을 논거로 개혁 이후에는 소비에뜨형과는 달리 농민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발전전략이 수정되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또 과거에는 스탈린적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개혁 이후에는 農·工 均衡發展戰略으로 선회하였다는 논의도 존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연구에서는 中國의 農·공간 관계에 관한 거시적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실증적인 결론을 얻어내고자 한다.

지금까지 中國 經濟發展戰略의 성격에 관하여는 농업부문이 공업화를 위해 필요한 잉여의 원천인가 아닌가 하는 農·工間 資源移轉 문제를 통하여 분석되기도 하였다.⁽⁵⁾ 그러나 부문간 자원이전을 실제로 계측할 때에는 양 부문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中國의 경우에는 ‘農業部門,’ ‘農家部門,’ ‘農村部門,’ ‘人民公社部門’ 등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데, 생산, 투자, 판매, 구입, 인구, 노동력 등 통계자료는 이러한 갖가지 개념에 입각하여 산만하게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담한 가정에 입각한 추정이 필요하게 되고, 회계적 프레임은 더욱 정교하게 구성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회계적 프레임은 구성하지 않고 農·공간 관계를 고찰하는 방법으로는, 농업성장이 공업 성장과 어떠한 相關關係를 맺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농업성장과 공업 성장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문제는 Tang(1967, 1984)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Tang은 中國과 蘇聯의 초기 발전전략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中國 농업정책의 성격이 비교적 ‘發展的’(developmental)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러나 이 假說을 보다 엄밀하게 실증하는 작업은 그 이후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⁶⁾

그리하여 본연구에서는 中國의 農·공업 성장률의 相關關係, 農·공업 성장률의 變動, 농산물 수매 및 소비의 變動 상황을 최근 통계자료에 입각하여 분석함으로써 Tang의 假說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 때 1953~1990년의 시계열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 시기를 확장하되, 1953~1965년, 1966~1978년, 1979~1990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에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과거 中國經濟의 발전패턴을 시기별로 유형화 하고, 경제개혁 이후 과연 새로운 발전전략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中國經濟發展에 대한 Tang의 假說

일찍이 Tang(1967, 1984)은 經濟發展戰略과 농업의 역할을 논하면서, 공업화 초기 농

(5) Ishikawa(1967), Perkins(1975), Lardy(1983), 石川滋(1965, 1966), 林信道(1976), 今岡日出紀(1976), 中兼和津次(1988, 1990, 1992) 등이 이러한 연구이다.

(6) 中國의 農·공간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Tang과 함께 Chen and Tsuchigane(1973)이 선구적 연구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매우 넓은 통계에 기초한 연구이다. 비교적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는 王群會(1991)의 연구가 있다.

업정책이 舊蘇聯에서는 ‘收奪的’(extractive)으로, 中國에서는 ‘發展的’(developmental)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經濟發展戰略의 유형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케이스로 유형화하고 있다[Tang(1967, pp. 1119~1122, 1984, pp. 36~38)].

Tang이 말하는 제 I 유형에서는 정상적 조건하에서 농업부문에 존재할 수 있는 실제 잉여량의 최대한도를 농업외부의 수요에 충족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농업부문의 조건에 의해 제한받지 않고 최대한의 비율로 투자와 공업이 성장한다. 국가는 수확량 변동에 따라 調達計劃을 수시로 변경하며 농산물 수요·공급의 균형을 위하여 在庫管理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민은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소비수준을 유지할 뿐이다.

제 II 유형에서는 농업부문에 부과된 농업외부의 수요는 실제 농업잉여의 최대한도보다는 작고, 국가가 농업에 대해 기대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국가는 산출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調達을 수행하며 따라서 在庫管理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담을 지지 않는다. 국가는 농업 산출량중에서 공업이 수요하는 최대한을 일차적으로 調達하고, 그 이후 잔여량을 집단농장이 수요한다. 집단농장 및 농민은 스스로 보관시설을 갖추고 효율적인 배분에 관심을 가지며, 농민의 소비는 당국이 암묵적으로 상정하는 최소수준을 상회한다.

제 III 유형에 있어서는 농업부문에 부과된 농업외부의 수요는 정상적 조건하에서 존재하는 실제 농업잉여량의 최대한도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발전이 공업발전을 제약하게 된다. 풍작시 농업외부의 수요는 충족되지만, 평년작이나 흉작시에는 수요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공업성장률이 떨어지고 國家 調達量도 감소한다. 풍작시 실제 존재하는 농업잉여의 최대한이 수요량을 상회할 때에는 국가에 의하여 재고관리가 행하여지지만, 이 때의 잉여가 흉작시의 부족을 보충하지는 못한다. 농민이 산출량중에서 일차적으로 최소한의 자신의 몫을 소비하고, 그 이후의 잔여량을 국가가 수요한다.

蘇聯의 경우 공업화 초기에 농업잉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제 I 유형 또는 제 II 유형에 해당하지만, 中國의 경우 초기의 농업잉여가 적어 제 III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이 Tang의 견해이다. 양국은 농업의 제약으로부터 공업성장 및 투자를 자유롭게 하려는 공통의 목표를 가졌으나, 농업정책은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中國의 경우 ① 농·공업 성장률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correlation)가 존재하고, ② 공업성장률의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가 상대적으로 크며, ③ 농민 1인당 소비수준이 國家 調達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 반하여, 蘇聯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상황이라는 것이다.⁽⁷⁾

(7) 소련의 1차 5개년계획 기간(1928~1932) 중에 농업생산은 25~30% 감소하였으나 유통량 비율

3. 農·工業成長率의 因果關係

Tang(1967, 1984)은 中國의 경우에는 蘇聯과는 달리 농업발전이 공업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농업성장이 공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中國(1949~1958), 蘇聯(1928~1937)의 順位相關係數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보통 순위 상관계수는 통계치의 개수가 작아서 상관계수의 유의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더욱이 Tang은 공업화 초기의 상황을 蘇聯과 비교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의 상황 전개는 분석되지 않았다. 따라서 Tang의 논의는 공업화 초기에 中國 농·공업 성장의 相關性이 蘇聯에 비하여 높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된다.⁽⁸⁾

본연구에서는 과연 농업이 공업발전을 제약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공업 成長率간의 相關關係(correlation)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농업성장률, 공업성장률, 축적증가율을 피설명변수(Y)로 놓고, 전년의 농업성장률, 금년의 농업성장률, 전년의 공업성장률, 금년의 공업성장률, 축적증가율을 각각 설명변수(X)로 놓은 다음, 單純回歸分析을 행하여 보자. 이 때 회귀식은

$$Y=a+b \cdot X$$

이다. 설명변수를 바꾸어 가면서 회귀계수를 추정한 <表 1>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관찰할 수 있다. 첫째, 전년의 농업성장률과 공업성장률은 각각 금년의 농업성장률과 공업성장률에 대하여 0.484, 0.359라는 陽(+)의 회귀계수를 나타냈다. 둘째, 농업성장률과 전년의 공업성장률 사이에는 -0.137이라는 陰(-)의 회귀계수가 구하여졌다. 셋째, 공업성장률과 전년의 농업성장률 사이에는 0.959라는 높은 회귀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넷째, 축적증가율은 전년 농업성장률과의 사이에 2.107의 매우 높은 회귀계수가, 전년 공업성장률과의 사이에 1.464라는 회귀계수가 구하여졌다.

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931~1932년에 대규모의 饑饉과 餓死 현상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초기조건이 더욱 빈약하였던 데다가 소련의 오류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보다 조신스런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8) Tang(1967, 1984)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時差가 없는 경우에 있어 농업성장의 영향을 나타내는 순위상관계수를 구할 때, 중국의 경우 공업 전체 0.67*, 중공업 부문 0.75*, “근대” 부문(개념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장형 시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추측) 0.70*이고, 소련의 경우, 대규모공업 0.10, 소비재공업 0.15이다. 당년 및 전년 농업 성장률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時差式에 있어서의 순위상관계수는, 중국의 경우 하위부문(자본재부문, 근대부문, 소비재부문) 0.88**, 공업 전체 0.91**, 소련의 경우 대규모공업 0.28, 소비재공업 0.71*이다. 이 때 *는 5% 유의수준에서, **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이다.

〈表 1〉 農業 및 工業成長率, 蓄積增加率의 相關關係

설명변수 \ 피설명변수		농업성장률	공업성장률	축적증가율
전년농업성장률	a	1.921(0.390)	8.846(0.591)	5.524(0.209)
	b	0.484(3.522)	0.959(2.299)	2.107(2.858)
	R ²	0.256	0.128	0.185
금년농업성장률	a	—	12.370(0.773)	8.791(0.312)
	b	—	0.204(0.459)	1.379(1.675)
	R ²	—	0.006	0.072
전년공업성장률	a	5.733(1.090)	7.987(0.535)	8.808(0.309)
	b	-0.137(-2.530)	0.359(2.345)	0.402(1.372)
	R ²	0.151	0.132	0.050
금년공업성장률	a	3.830(0.649)	—	-4.540(-0.259)
	b	0.028(0.459)	—	1.464(8.031)
	R ²	0.006	—	0.642
축적증가율	a	3.165(0.576)	6.571(0.685)	—
	b	0.052(1.675)	0.438(8.031)	—
	R ²	0.072	0.642	—

資料：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에 의거하여 필자 계산.

註：Y=a+b·X의 식에서, 농업성장률, 공업성장률, 축적증가율 등 각각의 Y에 대하여 전년 농업성장률, 금년 농업성장률, 전년 공업성장률, 금년 공업성장률, 축적증가율을 하나씩 X로 취하여 회귀계수를 추정. () 안의 수치는 t값임.

이러한 결과로부터 農業, 工業, 蓄積 사이에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전년의 높은 농업성장률이 금년의 높은 공업성장률과 축적증가율을 가져오고, 또 높아진 축적증가율은 다시 공업성장을 자극한다. 그러나 공업성장률이 높아진 다음 해에는 농업성장률이 억제되고, 이는 다시 공업성장의 억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농업발전이 공업발전을 제약하는 것이 주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는가? 오히려 Tang의 假說은 中國의 농·공간 관계의 부차적 측면을 지적한 것에 지나지 않고, 농업발전에 대한 공업발전의 規定性이 더욱 주요한 것은 아닌가? 또 시기별로 어떤 차이는 없는가?

이러한 문제를 보다 분명히 검증하기 위하여 Granger(1969)의 因果關係(causality) 定義를 이용하기로 한다. Granger에 의하면,

$$\sigma^2(X_t | \bar{U}) < \sigma^2(X_t | \bar{U} - \bar{Y})$$

(\bar{U} : (t-1)기까지의 모든 정보, $\bar{U} - \bar{Y}$: (t-1)기까지 Y를 제외한 모든 정보)

이때 Y에서 X로 因果關係가 존재한다. 그런데 실제로 있어 모든 정보의 사용은 불가능하므로,

$$\sigma^2(X_t | \bar{X}, \bar{Y}) < \sigma^2(X_t | \bar{X})$$

이면, Y에서 X로 因果關係가 존재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계산과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線形模型을 가정하면,

$$X_t = \sum_j a_j \cdot X_{t-j} + \sum_j b_j \cdot Y_{t-j} + \varepsilon_t$$

$$Y_t = \sum_j c_j \cdot X_{t-j} + \sum_j d_j \cdot Y_{t-j} + \eta_t$$

$$\text{단, } E(\varepsilon_t \cdot \varepsilon_s) = E(\eta_t \cdot \eta_s) = E(\varepsilon_t \cdot \eta_t) = 0$$

에서 b_j 가 0이 아니면 Y에서 X로 因果關係가 존재하며, c_j 가 0이 아니면 X에서 Y로 因果關係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Granger(1969, pp. 424~438), Geweke(1982, p. 210)].

이러한 Granger의 因果關係 定義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세워 보자.

$$A_t = a + b_1 \cdot A_{t-1} + b_2 \cdot M_{t-1}$$

이 때 A_t 는 금년 농업성장률을 나타내며, A_{t-1} 은 전년 농업성장률을, M_{t-1} 은 전년 공업성장률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회귀식의 독립변수로서 $(t-2)$ 기, $(t-3)$ 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t-1)$ 기만을 설정한 것은, 첫째, 농업의 생산과 소비의 週期가 대체로 1년이므로 2~3년 전의 생산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렵고, 둘째, 회귀식에 $(t-2)$ 기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추정결과의 신뢰도가 오히려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회귀계수의 추정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1953~90년, 1953~65년, 1966~78년, 1979~90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행하기로 한다. 中國에는 大躍進運動과 調整期, 文化革命, 黨第11期 3中全會 등 여러 번에 걸쳐 生産關係가 변화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1953~57)과 大躍進期, 調整期를 묶어 집단경영의 成立段階로, 文化革命 이후 1978년까지를 집단경영이 高度化하는 段階로, 1978년 黨 제11기 3중전회 이후를 집단경영의 解體段階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⁹⁾ 물론 이러한 시기구분에는 생산관계 변화뿐만 아니라 각 시기마다 시계열 자료가 적어도 10개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통계분석상의 요구도 함께 고려되었다.

<表 2>에 나타난 추정결과에 따르면 1953~90년, 1953~65년, 1979~90년의 경우에 " $b_2=0$ "이라는 귀무가설은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공업성장률로부터 농업성장률에로의 因果關係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결정계수 R^2 은 1953~65년의 0.781을 제외하고는 1953~90년 0.442, 1953~65년 0.252, 1979~90년 0.336 등으로 작은 편이다. 즉 전년의 농업 및 공업성장률 요인 이외에도 농업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공업성장이 농업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개략을

(9) Blecher(1985)는 1965~1978년을 국가, 집단, 개인 형태가 복잡한 집합을 이루고 있되 집단농장이 1차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高度集産主義'의 시기로, 1979년 이후를 국가통제가 감소하는 가운데 집단과 개인 형태가 집합을 이루고 있는 '契約集産主義' 시기로 정의한 바 있다.

〈表 2〉 農業, 工業成長率의 因果關係(1)

	b_1	b_2	a	R^2
1953~1990	0.517(4.273)	-0.152(-3.413)	3.816(0.882)	0.442
1953~1965	0.578(4.186)	-0.220(-4.296)	4.200(1.005)	0.781
1966~1978	-0.195(-0.638)	0.147(1.824)	1.787(0.503)	0.252
1979~1990	0.024(0.087)	-0.357(-2.114)	10.462(3.468)	0.336

資料：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에 의거하여 필자 계산.

註： $A_t = a + b_1 \cdot A_{t-1} + b_2 \cdot M_{t-1}$ 의 회귀식에서, A_t 는 금년 농업성장률을, A_{t-1} 은 전년 농업성장률을, M_{t-1} 은 전년 공업성장률을 의미함. () 안의 수치는 t 값임.

〈表 3〉 農業, 工業成長率의 因果關係(2)

	d_1	d_2	c	R^2
1953~1990	0.886(2.237)	0.333(2.282)	4.701(0.332)	0.241
1953~1965	1.570(2.682)	0.413(1.904)	3.433(0.194)	0.522
1966~1978	-2.531(-2.578)	0.474(1.826)	13.117(1.151)	0.418
1979~1990	0.798(1.825)	0.437(1.603)	1.716(0.352)	0.375

資料：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를 근거로 필자 계산.

註： $M_t = c + d_1 \cdot A_{t-1} + d_2 \cdot M_{t-1}$ 의 회귀식에서, M_t 는 금년 공업성장률을, A_{t-1} 은 전년 농업성장률을, M_{t-1} 은 전년 공업성장률을 의미함. () 안의 수치는 t 값임.

계기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농업성장률에 대한 공업성장률의 회귀계수 b_2 는 1953~65년에는 -0.220였으나, 1979~90년에는 -0.357로 그 절대값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M_t = c + d_1 \cdot A_{t-1} + d_2 \cdot M_{t-1}$$

의 회귀식을 세우고, 회귀계수를 추정하여 보자.

〈表 3〉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1953~90년, 1953~65년의 경우에는 5% 유의수준에서 " $d_1 = 0$ "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농업성장률로부터 공업성장률에로 因果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66~78년에도 이러한 因果關係를 설정할 수 있으나 그 계수는 陰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성장률이 가속화될 경우 공업성장률은 하락한다는 것이다. 한편 1979~90년에는 5% 유의수준에서 " $d_1 = 0$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 이후에는 농업성장률로부터 공업성장률에로의 因果關係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요약한 것이 〈表 4〉이다. 1953~90년과 1953~65년에는 "농업성장→공업성장 촉진"이라는 관계와 "공업성장→농업성장 위축"이라는 관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966~78년에는 "농업성장→공업성장 위축"이라는 因果關係가 나타났

〈表 4〉 農業, 工業成長率의 因果關係(3)

	공업→농업	농업→공업
1953~1990	(-)	(+)
1953~1965	(-)	(+)
1966~1978		(-)
1979~1990	(-)	

資料: 필자 작성.

다. 이러한 결과의 경제적 의미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1960년대 초 제시된 “농업을 기초로 한다”는 방침이 이후 1970년대 말까지 기본적으로 계승되었다는 사실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런데 1979~90년에는 “공업성장→농업성장 위축”이라는 因果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953~90년의 경우에도 성립하였던 因果關係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中國에 있어서는 1965~78년을 제외한다면 1953년 이후 최근까지 공업성장이 농업성장을 規定하는 측면이 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Tang의 주장과는 달리 1953~65년의 공업화 초기에도 농업성장이 공업성장을 일방적으로 규정할 것만은 아니었으며, 공업성장이 농업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존재하였다. 특히 1978년 경제개혁 이후에는 농업성장이 공업성장을 규정하는 면은 존재하지 않고, 이전 시기에 비해 공업성장이 농업성장을 규정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4. 農·工業成長率 및 農產物分配의 變動

그러면 다음에는 지금까지와는 각도를 달리하여 농업과 공업성장률의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Tang(1984)은 中國과 蘇聯의 초기공업화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중·소 양국 모두 농업부문의 변동에 대하여, 공업중에서도 優先順位가 낮은 경공업부문을 가변적으로 운용하지만, 中國에서는 蘇聯과 달리 경공업부문의 변동이 농업부문의 교란을 완전히 흡수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공업 및 중공업성장률의 상대적인 변동이 심한 편이라는 것이다.⁽¹⁰⁾

이와 같은 공업화 초기의 공업성장률에 대한 Tang의 假說이 이후의 발전과정에서도 적

(10) Tang은 중국(1949~1958), 소련(1928~1937)의 공업성장률의 상대적인 변동, 즉 변이계수(CV)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소련의 경우 대규모공업 부문의 CV가 6.7%인 데 비하여, 중국의 경우에는 공업 전체 16.7%, 중공업부문 17.3%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Tang(1984, Table 2-1, Table 2-2) 참조].

〈表 5〉 農·工業成長率의 標準偏差

	농업	공업	경공업	중공업
1952~1990	5.77	15.63	12.50	21.10
1952~1965	8.19	22.01	18.10	29.13
1966~1978	3.60	13.10	8.71	17.65
1979~1990	3.21	5.34	5.43	6.96

資料：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를 근거로 계산.

용되는가? 그리고 개혁을 계기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농업 및 공업성장률의 標準偏差(s)를 1952~90년에 걸쳐서 살펴볼 때, 〈表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업 15.63, 중공업 21.10은 농업의 5.77에 비하여 상당히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업성장률에 대한 Tang의 假說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를 다시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1966~78년에는 농업정책이 상대적으로 ‘發展的’인 방향으로 전개된 반면, 1952~65년, 1979~90년에는 상대적으로 ‘收奪的’인 농업정책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업성장은 1966~78년에 이르러 급격히 안정화되고 있으나, 공업 전체나 중공업의 성장은 1966~78년은 물론 특히 1979~90년에 더욱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공업과 농업, 그리고 중공업과 농업의 標準偏差比는 각각 1952~65년 2.7:1, 3.6:1에서 1966~78년 3.6:1, 4.9:1로 증가하였으나, 1979~90년에는 반대로 1.7:1, 2.2:1로 크게 감소하였다.

1966~78년의 농업성장의 상대적 안정화는 “농업을 기초로 한다”는 정책에 의해 농·공업간의 投資 優先順位가 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979~90년에는 농업부분의 불안정성이 다시 증폭되었다. 1978년 이후의 分權化·市場化 개혁은 농민의 생산유인을 자극하여 1980년대 전반 급격한 농업생산 증가를 가져 왔다. 그러나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전통적인 기술체계를 혁신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零細小經營體制의 生産力的 限界가 표출되게 되었던 것이다.⁽¹¹⁾

한편 Tang에 의하면 蘇聯과 달리 中國에서는 농민이 생산량중에서 일차적으로 자신의 몫을 소비하고 난 이후 남은 부분을 국가가 수요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농장분배분의 변동이 작은 반면 비농장 수요자에 대한 분배분의 변동은 심하다는 것이다.⁽¹²⁾

(11) 중국에서는 1980~1982년에 生産責任制가 급속히 도입되어 이전의 집단농업 체제를 대체하였는데, 1984년에 이르러 人民公社가 해체됨으로써 가족경영 체제의 성립이 법적·제도적으로 완료되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영세소경영 체제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李日榮(1994)을 참조.

(12) Tang은 중국(1952~1957), 소련(1932~1939)의 농산물 분배분의 상대적인 변동, 즉 변이계수(CV)를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중국의 경우 농장원 1인당 분배분의 CV가 3%로 가장 낮고, 농장유보분의 CV는 7%이며, 유통량의 CV가 14%로 가장 높다. 반면 소련의 경우 국가조달량

〈表 6〉食糧 收買量, 生産量の Coppock 指數

	1952~1990	1952~1965	1966~1978	1979~1990
수 매 량	32.60	11.31	4.74	7.18
생 산 량	11.32	8.88	3.18	3.38

資料：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에 의거하여 필자 계산.

註：1) Coppock's index = $\{\sum(|Y_t - Y_t'|/Y_t') \times 100\} / N$.

Y_t 는 t 년의 관측치, Y_t' 는 t 년의 최소자승추정치. N 은 年數를 의미.

2) Y_t' 는 〈附表 1〉의 추세식에 의해 추정.

이와 같은 초기공업화에 있어 농산물 분배의 변동에 대한 Tang의 假說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개혁 이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먼저 식량의 수매량과 생산량의 변동상황을 Coppock 指數를 구하여 고찰하여 보자. Y_t 가 t 년의 관측치, Y_t' 가 t 년의 최소자승추정치, N 이 年數를 의미한다고 할 때, Coppock 指數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Coppock(1977, pp. 4~10)].

$$\text{Coppock's index} = \{\sum(|Y_t - Y_t'|/Y_t') \times 100\} / N$$

〈表 6〉에 제시된 Coppock 指數의 계측결과를 살펴볼 때 식량생산량의 指數는 1952~65년 8.88에서 1966~78년에는 3.18로 하락하였고, 식량수매량의 指數도 11.31에서 4.74로 낮아졌다. 즉 1966~78년에는 생산량과 수매량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시기에 상대적인 의미에서나마 ‘農業優先’ 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1979~90년에는 식량생산량의 Coppock 指數가 3.38로 약간 증가한 반면, 수매량의 指數는 7.18로 크게 상승하여 수매량의 변동이 심하여졌다. 이는 일견 1978년 경제개혁 이후 농민에 대한 분배를 더욱 우선적으로 취급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 이후의 수매량 변동이 큰 폭으로 나타난 데에는 1980년대의 生産變動과 財政問題의 발생, 이에 따른 收買制度의 개혁이 주된 원인이었다.

1979년 이후, 특히 1982년 이후 식량생산량은 급증한 반면, 1978~84년의 식량소비량은 약간만 증가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1983년에는 국가 수매량과 배급량 수준이 역전되기에 이르렀고, 1984년의 풍작에 따라 수매량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렇게 1983, 1984년에 식량재고가 과잉상태에 이르게 되자, 전국적으로 농가의 ‘販賣難’과 국가의 ‘貯藏難’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計劃收買·計劃配給’ 제도를 유지하는 데에 막대한 국가 재정

의 CV는 9%로 총생산량의 15%보다도 낮은 데 비하여, 팔호즈 잔류분의 CV는 21%이며, 콜호즈 농민 분배분의 CV 28%, 표준노동일(трудодень, trudoden) 가치의 CV 29%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Tang(1984, Table 2-3, Table 2-4) 참조].

〈表 7〉 農産物 1人當 消費量의 Coppock 指數

	식 량			유지작물	면 포	돼지고기
	전 국	도 시	농 촌			
1952~1990	8.84	5.74	9.97	43.05	12.98	29.90
1952~1965	5.39	6.20	6.66	17.73	22.71	29.84
1966~1978	2.62	2.02	2.95	3.05	6.01	5.22
1979~1990	3.68	4.29	3.60	9.14	5.12	1.96

資料：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에 의거하여 필자 계산.

註：1) Coppock's index = $(\sum(|Y_t - Y_t'|/Y_t'|) \times 100) / N$.

Y_t 는 t 년의 관측치, Y_t' 는 t 년의 최소자승추정치, N 은 年數를 의미.

2) Y_t' 는 〈附表 2〉 및 〈附表 3〉의 추세식에 의해 추정.

이 소모되었다. 그리하여 1985년 計劃收買 제도를 폐지하고 契約收買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수매가격의 실질적 인하와 수매량의 감축을 의도한 조치였다. 이러한 정책 개혁의 와중에서 국가의 수매량은 상당한 큰 폭으로 변동하게 되었던 것이다.⁽¹³⁾

1953~90년에 있어서의 식량수매량의 Coppock 指數는 32.60으로 식량생산량의 指數 11.32에 비하여 훨씬 높다. 이렇게 수매량의 변동이 심한 것은 생산 농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분배가 행하여졌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결과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와는 모순되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그리하여 수매량에 비해 분배상황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소비량의 변동을 살펴보기로 하자. 식량, 유지작물, 면포, 돼지고기 등의 1인당 소비량에 대한 Coppock 指數는 〈表 7〉과 같이 구하여졌다. 식량의 경우 1952~90년 동안에 Coppock 指數는 도시 5.74, 농촌 9.97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消費變動이 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中國의 농장분배분의 변동이 작은 반면 비농장 수요자에 대한 분배분의 변동은 심하다는 Tang의 논지와는 배치되는 결론이다.

Coppock 指數를 시기별로 볼 때에도 그 결과는 Tang이 제시한 결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다. 1952~65년에 전국 5.39, 도시 6.20, 농촌 6.66에서 1966~78년에는 전국 2.62, 도시 2.02, 농촌 2.95로 하락하였으나, 개혁 이후인 1979~90년에는 다시 전국 3.68, 도시 4.29, 농촌 3.60으로 상승하였다. 즉 공업화 초기보다는 오히려 1966~78년에 도시 및 농촌의 분배가 전체적으로 안정화되었는데, 이는 다른 시기에 비해 1965~78년에 농업생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개혁 이후 식량소비량은 더 심하게 변동하였다. 그러나 이는 농촌에 한정된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李日榮(1993)을 참조.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유지작물은 식량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綿布와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개혁 이후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개혁 이후 식량소비량 변동의 심화를 단순히 농촌보다는 도시를 중요시한 정책의 소산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만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中國에서는 ‘發展의’ 농업정책의 시행으로 농민에 대한 분배분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Tang의 주장이 현실에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5. 要約 및 結論

지금까지 中國의 經濟發展戰略 및 농업정책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 본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Granger의 因果關係 定義를 이용하여 1953~90년의 농·공업 성장률의 因果關係를 분석할 때 농업이 공업발전을 제약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1953~90년과 1953~65년에는 “농업성장→공업성장 촉진”이라는 관계와 “공업성장→농업성장 위축”이라는 관계가 동시에 성립하였고, 1979~90년에는 “공업성장→농업성장 위축”이라는 因果關係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966~78년의 경우에만 “농업성장→공업성장 위축”이라는 因果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공업성장률의 변동상황을 볼 때 농업성장은 공업성장에 비하여 1966~78년에 이르러 급격히 안정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업 전체나 중공업의 성장은 1966~78년은 물론 1979~90년에 더욱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다. 개혁 이후 공업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1953~90년의 농산물 소비량의 변동에 있어서도 도시보다 농촌에서 식량소비량이 더욱 심하게 변동하였으며, 전체적인 변동 폭은 1979~90년이 1966~78년보다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매량 변동의 경우 경제개혁 이후 변동 폭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농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분배한 결과라기보다는 1980년대의 생산변동 및 수매제도의 개혁에 기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966~78년을 제외하고 1953~90년, 1953~65년, 1979~90년에 ‘工業優先’ 전략이 기본적으로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53~57년의 스탈린적 전략에서는 매우 높은 경제성장률과 중공업 지향형의 공업화를 추구하였으며, 이러한 발전패턴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높은 투자율·저축률이 요구되었다. 한편 농업생산을 증대하고 高率의 비자발적 저축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農業集團化를 추진

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농업의 희생에 기초한 공업화 전략이었던 것이다[Eckstein(1977, pp. 61~65)]. 한편 大躍進運動의 중심과제는 공식적으로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투자의 우선순위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過剩勞動의 大規模 動員과 技術의 二重構造라는 2가지 수단에 의해 스발린적 전략으로부터 야기된 농·공간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¹⁴⁾

1966~78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문맥 그대로 해석한다면 ‘農業優先’의 성장·분배 메커니즘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시에 있어서도 ‘重工業優先’의 투자패턴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단 ‘農業基礎論’⁽¹⁵⁾에 근거를 두었던 文化革命期の 정책 기조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낳는 데 부분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추론할 수는 있다. 大躍進期에는 노동력이 농업으로부터 다량 추출되었고, 농업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담이 증대되었으며, 생산기반의 약체화로 농업생산이 크게 감소하였던 데 비하여, 文化革命期에는 농업노동력의 절대수, 농업관련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고, 농업생산 역시 절대적으로는 성장하였던 것이다[藤村俊郎(1983, pp. 206~212)].

본연구에서 특히 강조할 점은 1978년 이후 농업정책의 성과가 ‘發展의’인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개혁 이후 공업발진이 농업발진을 제약하는 경향이 오히려 심화되었으며, 공업부문의 변동은 농업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식량 소비량의 변동은 더 심해지고 있다. 1978년 3中全會에서 “농업생산의 회복과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이러한 결의는 中國의 농·공간 관계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새로운 정책·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실제로 農·工間 不均衡이라는 구조적 왜곡을 극복하고자 지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中國에는 1978년 이후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발린적 발전패턴이 ‘連續’하고 있는 것이다.

‘農業優先’인가 ‘工業優先’인가 하는 논점을 중심으로 中國의 經濟發展戰略을 평가할 때, 中國에서는 ‘농업우선’ 경향보다는 ‘공업우선’ 경향이 주요한 측면이었으며, 이러한

(14) Eckstein(1977, pp. 66~72)은 이러한 大躍進 전략을 Nurkse-Eckaus型 발전전략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저개발국에서 과잉노동이 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다는 Nurkse(1953)의 통찰은 大躍進운동의 기본 전제이며, 자본집약적·노동집약적인 2가지 기술체계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생산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Eckaus(1955)의 생각은 大躍進期の “두다리로 걷는다”는 방침과 극히 유사하다는 것이다.

(15) ‘農業基礎論’의 문제의식과 기본적 인식의 원형은 1956년에 이루어진 毛澤東의 『十大關係에 관하여』라는 講話에서 표출된 바 있으나, 이러한 정책 이념이 명확하게 정식화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다. 1962년 가을 당 제 8기 10중전회에서 “농업을 기초로 하고 공업을 인도자로 하여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총방침”을 채택함으로써 “농업을 기초로 하는” 노선으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1964년 말~1965년 1월의 제 3기 全國人民代表大會 제 1회의의 周恩來 보고를 통하여 재확인되었다[藤村俊郎(1983, pp. 173~174) 참조].

‘공업우선’의 경향은 개혁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經濟發展理論에 있어, ‘농업우선’론에서는 比較優位論을 승인하여 저개발국의 경우 농업생산력 향상에 주력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16) ‘공업우선’론에서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이 후진국 經濟發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저개발국이 적극적으로 공업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17)

확실히 中國은 농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진보를 통하여 “전체 경제성장 및 구조전화를 촉진하고 농업·비농업 간의 적극적 상호작용의 이점을 충분히 이용하는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의 확장 비율 및 패턴”[Johnston and Kilby(1975, p.133)]이라는 의미에서, ‘均衡的’ 발전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농업부문으로부터 유출되는 過剩勞動力을 토대로 지속적인 공업화를 추진하는 Lewis(1954)의 발전모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中國의 공업화는 鄉鎮企業을 중심으로 한 “도시형 공업의 農村化”를 통하여 추진됨으로써, 농촌인구가 도시지역으로 이주하여 노동자계급으로 社會的轉換(social transformation)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18)

韓國農村經濟研究院 責任研究員
 130-050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 (02) 962-7311~5
 팩시 : (02) 965-6950

〈附 表〉

〈附表 1〉 食糧 收買量, 生産量의 趨勢式

		수	매	량	생		산	량
52~90	a	2,007.570	(1.025)		11,363.08	(4.081)		
	b	208.989	(7.500)		749.060	(18.908)		
	R ²	0.603			0.906			
52~65	a	5,066.962	(6.470)		17,737.50	(9.229)		
	b	-91.467	(-1.576)		-27.203	(-0.191)		
	R ²	0.184			0.003			

(16) Johnstone and Mellor(1961) 및 Nicholls(1963)가 이에 속한다.

(17) Nurkse, Lewis, Singer, Prebisch, Baran, Myrdal 등이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였다(森田桐郎(1972, pp.241~267) 참조).

(18) Lewis의 2부문 발전모형을 중국의 농촌공업과 공업의 관계에 적용한 연구로는 嚴善平(1992), 渡邊利夫(1991), 栗林純夫(1990), 加藤弘之(1986) 등이 있고,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王建의 ‘國際大循環經濟發展戰略’(『經濟日報』, 1988.1.5), 趙紫陽의 ‘沿海地域經濟發展戰略’(『人民日報』, 1988.1.23)으로 표출된 바 있다.

66~78	<i>a</i>	3,852.769 (12.384)	19,529.62 (20.615)
	<i>b</i>	93.500 (4.054)	815.516 (11.613)
	<i>R</i> ²	0.599	0.925
79~90	<i>a</i>	5,508.650 (5.859)	31,655.48 (18.022)
	<i>b</i>	707.158 (8.994)	961.028 (6.543)
	<i>R</i> ²	0.890	0.811

資料：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

註： Y_t' 를 추세치, X_t 를 연도라 할 때, $Y_t' = a + b \cdot X_t$ 의 관계가 성립. 이 때 () 안의 수치는 *t*값을 나타냄.

〈附表 2〉 食糧消費量의 趨勢式

		식량 전국소비량	식량 도시소비량	식량 농촌소비량
52~90	<i>a</i>	167.593 (8.412)	199.666 (12.156)	161.375 (7.316)
	<i>b</i>	1.695 (5.978)	0.541 (2.316)	1.931 (6.153)
	<i>R</i> ²	0.491	0.127	0.506
52~65	<i>a</i>	205.974 (16.878)	231.216 (14.643)	202.756 (13.961)
	<i>b</i>	-2.720(-3.362)	-3.473(-3.317)	-2.778(-2.885)
	<i>R</i> ²	0.485	0.478	0.409
66~78	<i>a</i>	178.972 (26.338)	195.054 (35.398)	175.911 (23.208)
	<i>b</i>	1.015 (2.015)	1.173 (2.872)	0.971 (1.729)
	<i>R</i> ²	0.270	0.428	0.214
79~90	<i>a</i>	213.584 (18.424)	218.144 (17.608)	212.243 (18.761)
	<i>b</i>	3.563 (3.676)	0.981 (0.947)	4.242 (4.484)
	<i>R</i> ²	0.575	0.082	0.668

資料：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에 의거하여 필자 계산.

註： Y_t' 를 추세치, X_t 를 연도라 할 때, $Y_t' = a + b \cdot X_t$ 의 관계가 성립. 이 때 () 안의 수치는 *t*값을 나타냄.

〈附表 3〉 油脂作物, 綿布, 豚肉消費量의 趨勢式

		유지작물 소비량	면포 소비량	돈육 소비량
52~90	<i>a</i>	0.807 (0.751)	6.511 (4.967)	1.852 (0.967)
	<i>b</i>	0.088 (5.778)	0.005 (0.268)	0.310 (11.358)
	<i>R</i> ²	0.474	0.002	0.777
52~65	<i>a</i>	2.429 (6.289)	8.146 (4.265)	5.503 (3.298)
	<i>b</i>	-0.073(-2.865)	-0.226(-1.783)	-0.140(-1.267)
	<i>R</i> ²	0.406	0.209	0.118
66~78	<i>a</i>	1.706 (26.872)	6.295 (9.716)	6.408 (12.975)
	<i>b</i>	-0.007(-1.588)	0.038 (0.786)	0.098 (2.683)
	<i>R</i> ²	0.186	0.053	0.396

79~90	a	2.001 (4.270)	6.705 (14.021)	9.524 (29.676)
	b	0.366 (9.326)	0.022 (0.560)	0.574 (21.398)
	R^2	0.897	0.030	0.979

資料：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鑑』, 各年度에 의거하여 필자 계산.

註： Y_t' 를 추세치, X_t 를 연도라 할 때, $Y_t' = a + b \cdot X_t$ 의 관계가 성립. 이 때 () 안의 수치는 t 값을 나타냄.

參 考 文 獻

- 李日榮(1993): “중국 농업 정책·제도 개혁의 전개와 의의,” 『세계의 농업문제와 농업정책』, 농민신문사.
- _____ (1994): “1980年代 中國의 農業改革—農業生産性 및 農·工間 關係의 分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國家統計局 編, 『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 王群會(1991): “對中國農業波動的幾点分析,” 『中國農村經濟』, 第3期.
- 崔義中·王甫永(1991): “中蘇農業社會主義改造比較,” 『理論與現代化』, 第7期.
- 加藤弘之(1986): “中國農村的過剩勞働力をめぐる問題,” 『經濟學研究年報』 33, 神戸大.
- 今岡日出紀(1976): “中國における資本蓄積のメカニズム,” 中國資本蓄積研究會 編, 『中國の經濟發展と制度』, アジア經濟研究所.
- 渡邊利夫(1991): “中國に生成する新しい發展メカニズム—現代中國經濟發展論序說,” 渡邊利夫 編, 『中國の經濟改革と新發展メカニズム』, 東洋經濟新報社.
- 藤村俊郎(1983): “「農業基礎論」再考,” 近藤康男·阪本楠彦 編, 『社會主義下甦る家族經營—中國農政の轉換』, 農山漁村文化協會.
- 嚴善平(1992): 『中國經濟の成長と構造』, 勁草書房.
- 栗林純夫(1990): “二階層二重經濟發展戰略と鄉鎮企業,” 『中國の産業構造と經濟發展戰略』, 日中經濟協會.
- 林信道(1976): “中國の資金調達構造,” 中國資本蓄積研究會 編, 『中國の經濟發展と制度』, アジア經濟研究所.
- 森田桐郎(1972): 『南北問題』, 日本評論社.
- 石川滋(1965): “開發過程の農工バランス—中國にかんするケース・スタディ,” 『一橋論叢』 35. 1, 一橋大.
- _____ (1966): “開發過程の農工間資源移轉,” 『經濟研究』 17. 3, 一橋大.

- 中兼和津次(1976): “中國型發展モデルについて,” 中國資本蓄積研究會 編, 『中國の經濟發展と制度』, アジア經濟研究所.
- _____(1988): “中國農工間資源移轉: 再考,” 『經濟學研究 29』, 一橋大學研究年報.
- _____(1990): “農工間「不等價交換」論について—中國における缺狀價格差」論の一考察,” 『一橋論叢』 98. 6, 一橋大.
- _____(1992): 『中國經濟論—農工關係の政治經濟學』, 東京大學出版會.
- 阪本楠彦(1983): “協同化の軌跡,” 近藤康男・阪本楠彦 編, 『社會主義下甦る家族經營—中國農政の轉換』, 農山漁村文化協會.
- プレオブラジェンスキ(1967): 『新しい經濟』, 救仁郷繁 譯, 現代思潮社.
- Blecher, Marc(1985): “The Structure and Contradiction of Productive Relation in Socialist Agrarian ‘Reform’: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the Chinese Case,” in Ashwani Saith (ed.), *The Agrarian Question in Socialist Transitions*, London, Frank Cass.
- Brooks, Karen M.(1990): “Soviet Agricultural Policy and Pricing under Gorbachev,” in Kenneth R. Gray(ed.), *Soviet Agriculture: Comparative Perspectives*,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Brown Alan A., and Egon Neuberger(1989): “The Traditional Centrally Planned Economy and Economic Reforms,” Morris Bornstein(ed.), *Comparative Economic Systems: Models and Cases*, Homewood, Irwin.
- Chien, Kuan-I, and Robert Tsuchigane(1973): “Structural Changes and Sectoral Interdependence in the Chinese Economy, 1952~80,” *Keio Economic Studies*, 10, 1.
- Coppock, Joseph D.(1977): *International Trade Instability*, Farnborough, Saxon House.
- Eckaus, R.S.(1955): “Factor Proportions in Underdeveloped Areas,”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 Eckstein, Alexander(1977): *China's Economic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石川滋 監譯(1980), 『中國の經濟革命』, 東京大學出版會.
- Gary, Jack, and Gordon White(eds.) (1982): *China's New Development Strategy*, London, Academic Press.
- Geweke, J.(1982): “Causality, Exogeneity, and Inference,” in W. Hildenbrand(ed.), *Advances in Econometr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anger, C.W.J.(1969): “Investigating Causal Relations by Econometric Models and Cross-spectral Methods,” *Econometrica*.
- Hirschman, A.(1958):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Ishikawa, Shigeru(1967): “The Resource Flow Between Agriculture and Industry: The Chinese Experience,” *The Developing Economies*, 5, 1.
- Johnston, Bruce, and John Mellor(1961): “The Role of Agriculture in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51, 4.

Johnston, Bruce, and Peter Kilby(1975): *Agriculture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Economic Strategies in Late-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ueh, Y.Y.(1988): "Food Consumption and Peasant Income in the Post-Mao Era," *The China Quarterly*, 116, December.

_____(1989): "The Maoist Legacy and China's New Industrialization Strategy," *The China Quarterly*, 119, September.

Lardy, Nicholas R.(1983): *Agriculture in China's Moder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1984): "Consumption and Living Standards in China, 1978~83," *The China Quarterly*.

Lewis, Arthur(1954):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s and Social Studies*, 22, 2.

Nicholls, William H.(1963): "An Agricultural Surplus as a Factor in Economic Development,"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February.

Nurkse, Ragnar(1953):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veloped Countries*; 土屋六郎 譯(1955), 『後進諸國の資本形成』, 巖松堂.

_____(1962):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 in G. Haberler, and R. Stern(eds.), *Equilibrium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Economic Essay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Parish, William(ed.) (1985): *Chinese Rural Development*, Armonk, M.E. Sharpe, Inc.

Perkins, Dwight H.(1975): "Constraints Influencing China's Agricultural Performance," in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China: A Reassessment of the Econom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Perkins, Dwight H., and Shahid Yusuf(1984): *Rural Development in China*,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Saith, Ashwani(1985): "Primitive Accumulation, Agrarian Reform and Socialist Transitions: An Argument," in Ashwani Saith(ed.), *The Agrarian Question in Socialist Transitions*, London, Frank Cass.

Selden, Mark, and Victor Lippit(1982): *the Transition To Socialism in China*, Armonk, M.E. Sharpe, Inc.

Tang, Anthony(1967): "Agriculture in the Industrialization of Communist China and the Soviet Union," *Journal of Farm Economics*, 49, 5, December.

_____(1984): *An Analy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of Agriculture in Mainland China, 1952~1980*, Taipei, Chung-Hwa Institution for Economic Research.